



문화체육관광부

보 도 자 료

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

하나 된 열정
하나 된 대한민국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총 2쪽(붙임 1쪽 포함)
배포일시	2018. 1. 22.(월)	담당부서	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
담당관	학예연구관 양성혁(063-220-1021)	담당자	학예연구사 김상민(063-220-1030)

순회전 쇠·철·강 - 철의 문화사 연계강연회 개최

‘역사 속 전북 철문화 재조명’

국립전주박물관(관장 김승희)는 특별전 『쇠·철·강-철의 문화사』 순회전시와 연계하여 전북의 철문화를 재조명하는 연계강연회를 개최합니다.

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20일부터 특별전 『쇠·철·강-철의 문화사』를 선보이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의 순회전시로 철이 움직인 세계사와 한국사를 살피면서 우리 역사 속 철의 역할과 가치 변화를 주목하고자 하였습니다. 특히 이번 순회전시에서는 「1부 철과 인류», 「2부 철과 권력», 「3부 철과 삶」이라는 특별전 흐름 안에 「전북의 철문화」를 재차 강조하여 이 지역 철문화의 우수성을 녹여내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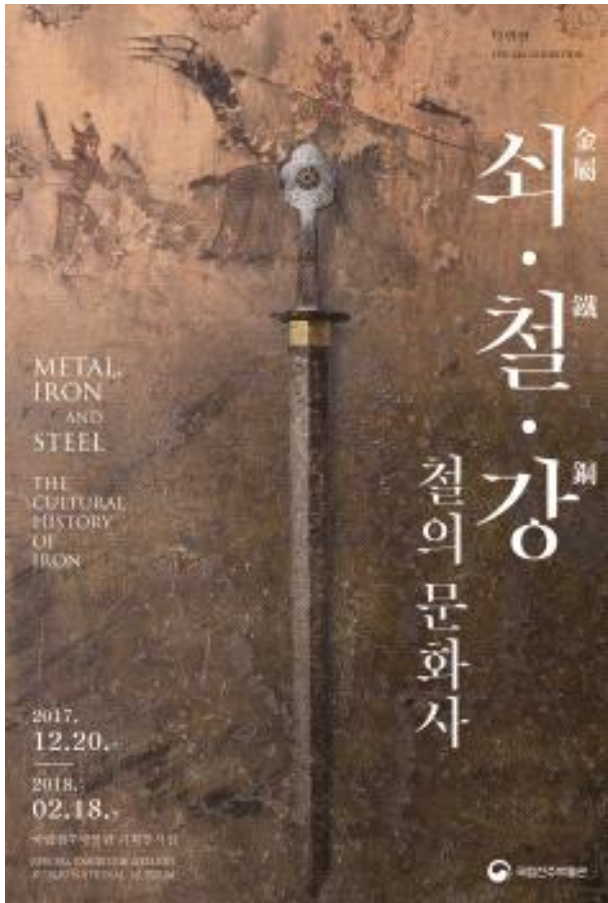
전라북도는 한반도 남부지역 최초로 철문화가 유입된 마한의 중심지이며, 발전된 가야 철문화의 실체를 보여주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.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「전북의 철문화」를 전시와 연계한 강연으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.

이번 연계강연회는 2회에 걸쳐 진행합니다. 먼저 특별전 『쇠·철·강-철의 문화사』에서 살폈던 세계사 속 우리의 철문화를 알기 쉽게 풀어서 살펴보고, 한국의 철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고대 전북의 철문화가 갖는 역사성을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.

이번 강연회는 전시 담당자의 기획 의도와 전시 뒷이야기 등 살필 수 있는 큐레이터와 관람객이 만나는 대화의 장이자 이 지역 철기문화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붙임 1. 사진 자료. 끝.

[붙임] 사진자료



포스터



순회전 쇠·철·강-철의 문화사 「전북의 철문화」



순회전 쇠·철·강-철의 문화사 전시 관람



마한의 초기 철기



금은입사철제발걸이

※ 특별전 쇠·철·강-철의 문화사 연계강연회 참가 안내

일 시	장 소	주 제	강 사	현 직
1.27.(토), 14:00	강당	한국의 철문화	김상민	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
2.10.(토), 14:00		전북의 철문화	최완규	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김상민 학예연구사(☎ 063-220-1030)에게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